

# 유럽연합의 DPA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로 미국산 사과의 유럽 수출 위기

## 1. 정보현황

o 수집지역:	미국		
o 수집날짜:	2013. 5. 7.	o 정보 출처:	<a href="http://www.thepacker.com/fruit-vegetable-news/crops-markets/US-apple-exports-to-Europe-at-risk-205642871.html">http://www.thepacker.com/fruit-vegetable-news/crops-markets/US-apple-exports-to-Europe-at-risk-205642871.html</a>
o 분류:		o 수집자:	북미 해외모니터요원
o 키워드:	Diphenylamine, Permitted Residue Level, Apple		

## 2. 주요내용

지난 달, 유럽연합은 수입 사과에 대해 Diphenylamine(DPA) 잔류허용치를 낮추는 결정을 하였다. 뉴욕사과협회 회장 짐 앨런은 “2014년 1월부터는 ‘황당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0.1ppm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럽의 현재 DPA 잔류허용치는 5ppm인데 반해 미국의 현재 잔류허용치는 10ppm이다. DPA는 수확후에 처리되는 식물성장조절제로서 사과와 배에서 각지벌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은 뉴욕주에서 생산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사과, 특히 엠파이어 품종의 사과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짐 앨런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특히 영국은 엠파이어 품종 사과의 주요시장이다.

Northwest원예위원회 학술부 부위원장 마이크 월렛에 따르면, 이번 유럽연합의 DPA 결정으로 인해 Pacific Northwest의 수출업체들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양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으로 사과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짐 알렌은 언급하였다. 마이크 월렛은 DPA 잔류허용치를 낮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의 많은 사과 재배농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생산량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월렛은 DPA를 저장시에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모든 미국산 사과가 식물성장조절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절제의 잔류성분이 휘발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과실이나 저장용기로도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DPA로 처리되지 않은 저장과실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DPA가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DPA 잔류성분은 잘 분해되지 않아 몇 년동안 잔류할 수도 있다.

짐 알렌 “저장시에는 처리되지 않은 과실에서도 DPA가 검출되는 DPA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0.1ppm 잔류허용기준은 거의 지키기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

## Decision Threatens U.S. Apple Exports to Europe

Last month,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o lower the permitted residue level of diphenylamine (DPA) on imported apples. Starting in January 2014, the level will not be able to exceed 0.1 parts per million – a “ridiculously low” limit, said Jim Allen, president of the New York Apple Association.

Europe’s current DPA limit is 5 parts per million, whereas the current U.S. limit is 10 ppm. DPA is a plant growth regulator applied postharvest and used to manage scald in apples and pears, according to the Northwest Horticultural Council.

The decis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exports of New York state apples to Europe, especially Empire apples. Europe – the United Kingdom in particular – is a strong market for Empires, Allen said.

Because of the DPA decision, Pacific Northwest exporters might lose half their normal shipments to Europe, said Mike Willett, vice president for scientific affairs at the Northwest Horticultural Council.

Other apple-producing countries that export to Europe, like Chile and Argentina, will be affected by the decision, too, Allen said. Willett said a lot of European growers are unhappy with the lowering of the DPA level because it will lead to significant losses for them as well.

Willett called DPA a “pretty essential tool” in storage. Not all U.S. apples are treated with the plant growth regulator, but its residues are volatile and can move from treated fruit and bins to untreated fruit and bins. As a result, DPA can contaminate stored fruit at significant levels – even fruit that wasn’t treated with it. DPA residues are persistent, too, and can stick around for years, he said.

The risk of DPA cross-contamination in storage will make Europe’s 0.1 residue level almost impossible for affected shippers to work with, Allen said.

### 3. 조치계획

관련기관 정보제공